길거리 음식 떡·튀·순에 와인?… 분식 마리아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165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의 전통시장에 위치한 분식집 앞에서 사람들이 분식과 함께 캘리포니아 와인을 시음하고 있다. /CWI

힘을 뺄 때도 됐다. 와인에 대한 마음가짐 말이다. 와인 마신다고 스테이크 굽고, 고급 레스토랑 예약할 시기는 이제 지났다. 팬데믹 속에 다들 집에서든 어디서든 와인을 마신지 2~3년차가 됐으니 편하게 즐겨보잔 얘기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 전통시장의 한 분식집 앞에 수십 병의 와인이 늘어섰다. 길거리 음식 대표주자인 떡볶이, 튀김, 순대, 만두, 김밥 등과 함께 음료 메뉴는 바로 와인. '캘리포니아 와인 한 잔 3000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디서나 편하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분식과 와인의 매칭. 캘리포니아와인협회((California Wine Institute·CWI)가 이달 '캘리포니아 와인의 달'을 맞아 기획한 행사다.

CWI 히로 테지마 북아시아 및 오스트랄라시아 지역 공동대표는 "캘리포니아 와인과 한국의 분식을 페어링하는 것은 항상 시도해 보고 싶었던 일"이라며 "와인이 항상 심각하고 어렵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먼저 분식 대표 삼총사 '떡·튀·순'이다.

떡볶이는 맵고, 양념범벅으로 진득하다. 입안의 매운 맛을 달래줄 수 있도록 살짝 단맛이 나는 로제와인 '서터 홈 화이트 진판델' 아니면 상큼한 화이트와인 '제이 로어 베이 미스트 화이트 리슬링'과 잘 맞을 수 있다. 매운 음식에는 레드와인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고정관념일 뿐 잘 익은 과실향을 담은 'OZV 진판델'이나 메를로로 만든 '본테라 오가닉 이스테이트 메를로'도 좋다.

어울리는 와인을 찾는데 있어 떡볶이가 난이도 상급이라면 '튀·순'은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다.

기름진 튀김은 산도가 높은 '마지오 소비뇽 블랑'이나 스파클링 와인인 '글로리아 페레 블랑 드 블랑 브륏 NV'과 같이 하면 느끼한 맛을 잡을 수 있다. 레드와인 중에서는 붉은 과실향에 산미가 있는 '라 크레마 몬테레이 피노누아' 등 피노누아 품종이 제격이다.

당면이 주요 속재료인 순대는 가벼운 메를로나 카버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 가운데 타닌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으로 고르면 무난하다. 찹쌀이 들어간 순대라면 '로버트 몬다비 프라이빗 셀렉션 버본 배럴 까버네 소비뇽' 등 좀 더 무게감 있는 레드와인이 좋고, '세게지오 샤르도네' 등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와인과도 어울린다.

만두는 다양한 속재료가 들어가니 레드와인이나 화이트와인 다 무난하다. 화이트와인과 함께 하면 산미가 기름진 맛을 잡아주고, 레드와인과 같이 먹으면 풍부한 맛이 둥글둥글하게 조화를 이룬다. 너무 강한 와인보다는 과실미가 풍부하고 가벼운 와인이 낫다.

김밥에는 가볍고 상큼한 로제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인순 와인랩 대표는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담은 풍부한 과일 맛과 경쾌한 산미, 적당한 탄닌이 어우러진 와인은 분식의 멋진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라며 "화이트 와인은 차가운 온도로, 레드 와인은 살짝 서늘한 온도로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파놉티콘은 '다잉 메시지'?

인문 고전 강의

강유원 지음/라티오

'학생이라는 죄로 /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 공부란 벌을 받고 /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한때 '중2병 걸린 학생이 쓴 손발 오그라드는 시'로 화제가 됐던 글이다. 처음 접했을 땐 그저 유머러스한 풍자 시라고 생각했는데 곱씹을수록 공포스러운 다잉 메시지(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을 알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 같다. 요 며칠 고전에서 길어 오른 인류 지식의 정수를 다룬 책 '인문 고전 강의' 중 파놉티콘 관련 부분을 읽다가 그런 확신이 들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프랑스 의회에 감옥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원통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벽에 감방을 둥글게 배치한 형태의 원형 감옥 '파놉티콘'이 바로 그것. 벤담은 파놉티콘이야 말로 '국가가 여러 주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감시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 사람들을 '감시'한다. 그리고 '감시'를 사람들의 내면에 심어 놓는다. 감시자의 의도, 즉 질서와 규율을 피감시자의 내면에 집어넣으면 감시자의 입맛에 맞게 피감시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벤담은 파놉티콘 프로젝트 제안서에서 교육을 그 예로 든다. 그는 "교육은 학생을 둘러싼 전체 환경의 결과물이다. 한 인간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그의 행동 전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사물에 둘러싸이게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놓는 것이 교육이다"고 말한다. 섬뜩하기 그지없다.

저자 강유원은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를 사용해 감시하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설명하며 "죄수들의 몸에 감시를 집어넣어 감시자의 질서를 체화시키는 것이 벤담의 의도"라고 이야기한다. 고전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꿰뚫게 해주는 책.

576쪽. 2만7000원. /김현정 기자 hjk1@

폭스 포퓰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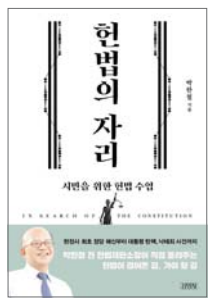
리스 펙 지음/윤지원 옮김/회화나무

폭스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방송사다. 책에 따르면, 폭스뉴스는 자신들이 특정 당파성과 정치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방송사의 주요 타깃이 보수 시청자라는 사실 역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저자는 "폭스뉴스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대중들을 설득하는 대신 공정과 균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므로, 균형과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허하다는 진실을 폭로했다"고 평가한다. 포퓰리즘과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을 결합한 미국 보수 언론의 성공기를 다룬 책.

476쪽. 2만2000원.

헌법의 자리

박한철 지음/김영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를 파면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가 성적 사생활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까? 태아를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책의 저자는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만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교수다. 저자는 평등과 자유, 가정과 사생활 보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등 우리 일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헌법 가치가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한다. 국민의 역할부터 국가의 역할까지 헌법의 핵심을 다룬 시민을 위한 헌법 교양서.

356쪽. 1만7800원.

거품의 배신

제임스 햄블린 지음/이현숙 옮김/추수밭

책은 '순수한 청결'을 강조하며 성장한 비누 산업의 모순과 지나친 향균 세정제가 가져온 피부 문제, 화장품 산업의 과대광고 실체 등을 신랄하게 까발린다. 저자는 우리가 거품 없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친환경을 내세우는 제품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상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생 습관에 대해 고민할 계기를 던져준다. 과도하게 씻지 않는 습관이 우리 몸의 피부 생태계와 지구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라고 책은 이야기한다.

280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주식 양도해야" /사진 뉴시스

▲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2심 무기징역…"사형 실효성 의문"

▲ '아영이 사건' 항소심…간호사 측 "떨어뜨린 사실 없다"

▲ '2조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2심서 형량 가중…징역 25년

▲ 노마스크 빨라지나…질병청장 "시기·대상 조속히 안내" /사진 뉴시스

▲ 지각 출발하는 국가교육위…"교원단체는 왜 빼나" 반발